

LG아트센터
2019년 시즌
기획공연
CoMPAS19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19

2019.2.21
-11.10

2.21 thu 8pm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
세드릭 티베르기엥
R 70,000 / S 50,000 / A 30,000

3.19 tue 8pm
토마스 크바스토프
'Nice 'N' Easy'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4.10 wed - **21** sun
tue-fri 8pm, weekend 3pm & 7pm
<인형의 집, Part 2>
R 60,000 / S 40,000 / A 30,000

5.18 sat - **19** sun
sat 7pm, sun 3pm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R 80,000 / S 60,000 / A 40,000

5.24 fri 8pm
장-기엔 케라스 &
양상블 레조난츠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5.29 wed - **6.2** sun
wed-fri 8pm, sat 5pm, sun 3pm
로베르 르빠주 연출/출연
<887>
R 80,000 / S 60,000 / A 40,000

6.12 wed 8pm
레이첼 포저 &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R 11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9.17 tue 8pm
추초 발데스 '재즈 바타'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9.20 fri - **21** sat / fri 8pm, sat 5pm
도이체스 테아터 <Let Them Eat Money>
R 80,000 / S 60,000 / A 40,000

9.26 thu - **29** sun
thu-fri 8pm, sat 7pm, sun 3pm
LDP 무용단 신작 '트리플 빌'
R 55,000 / S 45,000 / A 35,000

10.9 wed - **20** sun
tue-fri 8pm
10.9, weekend 2:30pm & 7:30pm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VIP 140,000 / R 110,000 / S 80,000 / A 60,000

10.22 tue 8pm
카잘스 콰르텟
R 80,000 / S 60,000 / A 40,000

10.29 tue 8pm
레 비올롱 뒤 루아 '모차르트의 1786년'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11.1 fri - **3** sun
fri 8pm, sat 5pm, sun 3pm
프렐조카쥬 발레 <프레스코화>
R 80,000 / S 60,000 / A 40,000

11.8 fri - **10** sun
fri 5pm, weekend 2pm
이보 반 호브 연출 <로마 비극>
All Seats 90,000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19





LG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사업인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2000년에 개관하여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해 온
LG아트센터는 창의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LG아트센터는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언제나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Th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business group LG in 2000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important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In pursuing this objective, LG Arts Center receives valuable resources in the form of financial subsidies from its parent the LG group to offset the operational losses incurred in the presentation of the arts. LG Arts Center strives to endorse diverse artistic values and expressions of our times to the Korean public, and aspires to become the premier performing arts venue for both our valued audiences and artists.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artistic inspirations and amazing viewing experiences for everyone. Our aim is to win their trusts and make LG Arts Center their most preferred presenter of performing arts in Korea.

CoMPAS19 패키지

패키지 티켓 오픈

2019.1.3(목) 오전 10시부터~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안내

- 패키지는 LG아트센터 홈페이지(PC 버전)와 전화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 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공연의 날짜 변경은 가능합니다.)
- 구성 공연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를 구매하신 관객께는 '패키지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패키지로 구매하신 공연 중 2매까지 '동행인 할인'을 적용 받아 동반인 좌석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 할인이 제공됩니다. (개별 공연 티켓 오픈 전까지는 '전화'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공연 티켓 오픈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1월 3일 오픈하는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선예매 기간을 두고, 20% 할인을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러시 아워 콘서트 패키지 제외

문의 및 예매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www.lgart.com
- 매표소: 평일 9am - 6pm(주말, 공휴일 휴무)
Tel. 02-2005-0114

연극과 무용 장르를 모두 포용하는
오픈마인드 관객을 위한 패키지

더블 패키지

판매 기간: 2019.1.3(목) - 4.9(화)

* 연극, 무용 장르 7편 모두 선택 시 30% 할인

4.10(수)-21(일)	<인형의 집, Part 2>
5.18(토)-19(일)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5.29(수)-6.2(일)	로베르 르빠주 연출/출연 <887>
9.20(금)-21(토)	도이체스 테아터 <Let Them Eat Money>
9.26(목)-29(일)	LDP 무용단 신작 '트리플 빌'
11.1(금)-3(일)	프렐조카주 발레 <프레스코화>
11.8(금)-10(일)	이보 반 호브 연출 <로마 비극>

(R) 525,000 → **367,500** **(S)** 415,000 → **290,500** **(A)** 315,000 → **220,500**

* <로마 비극>은 공연 단체의 의도에 따라 비지정석으로 운영되며, 단일 등급으로 전석 9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연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연극 마니아를 위한

연극 패키지

판매 기간: 2019.1.3(목) - 4.9(화)

* 연극 장르 공연 4편을 모두 선택 시 20% 할인

4.10(수)-21(일)	<인형의 집, Part 2>
5.29(수)-6.2(일)	로베르 르빠주 연출/출연 <887>
9.20(금)-21(토)	도이체스 테아터 <Let Them Eat Money>
11.8(금)-10(일)	이보 반 호브 연출 <로마 비극>

(R) 310,000 → **248,000** **(S)** 250,000 → **200,000** **(A)** 200,000 → **160,000**

* <로마 비극>은 공연 단체의 의도에 따라 비지정석으로 운영되며, 단일 등급으로 전석 9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연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무용 마니아를 위한

무용 패키지

판매 기간: 2019.1.3(목) - 5.17(금)

* 무용 장르 공연 3편을 모두 선택 시 20% 할인

5.18(토)-19(일)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9.26(목)-29(일)	LDP 무용단 신작 '트리플 빌'
11.1(금)-3(일)	프렐조카주 발레 <프레스코화>

(R) 215,000 → 172,000 **(S)** 165,000 → 132,000 **(A)** 115,000 → 92,000



고전부터 현대까지 폭넓은 시대를
소화하는 클래식 마니아를 위한 패키지

클래식 패키지

판매 기간: 2019.1.3(목) - 2.20(수)

* 클래식 장르 공연 5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30% 할인!

2.21(목)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 세드릭 티베르기엥
5.24(금)	장-기엔 케라스 & 앙상블 레조난츠
6.12(수)	레이첼 포저 &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10.22(화)	카잘스 콰르텟
10.29(화)	레 비올롱 뒤 루아 "모차르트의 1786년"

(R) 460,000 → 322,000 **(S)** 350,000 → 245,000 **(A)** 250,000 → 175,000

* 클래식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추가 구성 혜택!
토마스 크바스토프 공연 20% 할인

3.19(화)	토마스 크바스토프 'Nice 'N' Easy'
---------	---------------------------

(R) 560,000 → 402,000 **(S)** 430,000 → 309,000 **(A)** 310,000 → 223,000

색다른 재즈의 세계로
빠져보고픈 관객을 위한

재즈 패키지

판매 기간: 2019.1.3(목) - 3.18(월)

* 2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20% 할인!

3.19(화)	토마스 크바스토프 'Nice 'N' Easy'
9.17(화)	후초 발데스 '재즈 바타'

(R) 200,000 → 160,000 **(S)** 160,000 → 128,000 **(A)** 120,000 → 96,000



내 취향대로 구성하는 나만의 셀렉션

자유 패키지

* 2019년 기획공연의 동일 좌석등급 대상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10편 이상 선택 시 - 35% 할인	판매 기간: 2019.1.3(목) - 5.23(목)
6편 이상 선택 시 - 25% 할인	판매 기간: 2019.1.3(목) - 9.19(목)
3편 이상 선택 시 - 15% 할인	판매 기간: 2019.1.3(목) - 10.28(월)

* <로마 비극>은 공연 단체의 의도에 따라 비지정석으로 운영되며, 단일 등급으로 전석 9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연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CoMPAS19 할인 안내

개별공연 티켓 오픈

2019.1.10(목) 오전 10시부터~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공연 티켓 오픈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에매 할인 ~2.10(일)까지	• 개별 공연 구매 시 15% 할인
등싸 할인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동일 공연의 동일 회차, 동일 등급 4매 이상 구매 시 할인 (선착순 회당 100매) 25% <인형의 집, Part 2> 15% 이보 반 호브 연출 LDP 무용단 신작 '트리플 빌' <로마 비극> 20% 음악 공연 7편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로베르 르빠주 연출/출연 <887> 도이체스 테아터 <Let Them Eat Money> 프렐조카쥬 발레 <프레스코화>
가족 할인 ~5.17(금)까지	• 19세 이하(2001~2013년 출생) 자녀 동반 4매 이상 구매 시 30% 할인(선착순 회당 100매) • 티켓 수령 시 가족관계 증명 확인(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 해당공연: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청년 할인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 1매 할인 • R, S 20%, A, B 3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공연별 차등 할인 적용 • 자세한 내용은 LG아트센터 회원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참조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할인 ~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신한카드의 특별하고 품격 있는 문화 공연 제안 아트 컬렉션! •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공연을 '신한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공연별 선착순 200매) * 해당공연: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로베르 르빠주 연출/출연 <887> LDP 무용단 신작 '트리플 빌' 매튜 본 <백조의 호수> 프렐조카쥬 발레 <프레스코화>
신한카드 10% 할인 ~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모든 신한카드로 기획공연 예매 시 10% 상시 할인 제공

• 모든 할인은 중복 및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상시 할인은 LG아트센터 2019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19'에만 해당합니다.

CoMPAS19 프로그램

theatre

<인형의 집, Part 2>
 'A Doll's House, Part 2'
4.10wed – 21sun

로베르 르빠주 연출/출연 <887>
 Ex Machina '887'
 directed & performed by Robert Lepage
5.29wed – 6.2sun

도이체스 테아터 <Let Them Eat Money>
 Deutsches Theater Berlin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
9.20fri – 21sat

이보 반 호브 연출 <로마 비극>
 Internationaal Theater Amsterdam
 'Roman Tragedies'
 directed by Ivo van Hove
11.8fri – 10sun

dance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Jasmin Vardimon Company
 'Pinocchio'
5.18sat – 19sun

LDP 무용단 신작 '트리플 빌'
 'Triple Bill' with
 Laboratory Dance Project
9.26thu – 29sun

프렐조카쥬 발레 <프레스코화>
 Ballet Preljocaj
 'La Fresque'
11.1fri – 3sun

entertainment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10.9wed – 20sun

• 티켓 오픈 일정 별도 공지 예정

classical music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 세드릭 티베르기앵
 Alina Ibragimova & Cédric Tiberghien
2.21thu

장-기엔 케라스 & 앙상블 레조난츠
 Jean-Guihen Queyras &
 Ensemble Resonanz
5.24fri

레이첼 포저 &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Rachel Podger &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
6.12wed

카잘스 콰르텟
 Cuarteto Casals
10.22tue

레 비올롱 뒤 루아 '모차르트의 1786년'
 Les Violons du Roy
10.29tue

jazz music

토마스 크바스토프 'Nice 'N' Easy'
 Thomas Quasthoff 'Nice 'N' Easy'
3.19tue

추초 발데스 '재즈 바타'
 Chucho Valdés 'Jazz Batá'
9.17tue

“이 천재적인 작품은 19세기 고전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대적인 울림을 이끌어내는데 과감했다.”

“The genius of ‘A Doll’s House, Part 2’ is its temerity, the ways in which the playwright manages to coax out contemporary resonances from a 19th century classic without compromising its integrity” Time Out

4.10 wed—
4.28 sun
tue-fri 8pm
weekend 3pm & 7pm

R 60,000
S 40,000
A 30,000

원작: 루카스 네이스(Lucas Hnath)
연출: 김민정
출연: (노라) 서이숙, 우미화
(토르발트) 손종학, 박호산
(앤 마리) 전국향
(에미) 이경미

THEATRE

<인형의 집 Part 2> ‘A Doll’s House, Part 2’



19세기 여성들의 혁명적인 아이콘 그녀
‘노라’가 돌아왔다!

1879년 초연된 입센의 대표작 <인형의 집>은 사회가 요구한 역할에 갇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노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여성이 자아를 찾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다는 설정은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이었고,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떠났던 그녀가 그 문을 다시 두드린다. 미국의 촉망 받는 극작가 루카스 네이스(Lucas Hnath)가 2017년 발표한 작품, 바로 <인형의 집, Part 2>를 통해서다. 15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노라, 그녀는 왜 돌아왔을까?

노라가 떠난 후 남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떠났던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을까? 15년 전 자신이 힘껏 닫고 나갔던 문을 다시 열고 돌아온 노라는 토르발트, 유모, 딸 에미를 차례차례 대면한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노라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문을 닫고 나간 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음을, 이후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세상임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인형의 집 Part2>.

15년 만에 박차고 나간 문으로 다시 돌아온 노라 역에는 서이숙, 우미화 배우, 토르발트 역에는 손종학, 박호산 배우가 더블 캐스팅되어 상대 배역에 따른 색다른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며, 노라가 떠난 자리에서 가정을 지킨 유모 역에는 전국향 배우, 엄마를 첫 대면할 노라의 딸 역으로 이경미 배우가 출연하여 환상적인 호흡을 선사한다. 배우들의 농익은 연기와 환상적인 케미로 더욱 빛날 예정이다.

자, 이제 노크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린다. 돌아온 그녀, 노라를 만나보자!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Norwegian playwright Henrik Ibsen’s ‘A Doll’s House’ ends with the scene where Nora leaves the house and lets go of her old life, a life in which she could not be herself while fulfilling the social role she was demanded of. This unconventional and shocking ending brought fame to the piece, and the work has ever since continued to meet the audience as an unfinished story for over 140 years. However in ‘A Doll’s House, Part 2’, a sequel that marked the successful Broadway debut of the American playwright Lucas Hnath, Nora who left the house returns home and knocks on the door. This play was nominated for the Drama Desk Award, Outer Critics Circle Awards and eight Tony Awards in 2017. The work will be recreated in the hands of a Korean creative team and actors, telling the story why Nora had to come back home after 15 years. Why did Nora return?

“매혹적인 스토리텔링, 풍자적이면서도 위트가 넘치는 캐릭터, 혁신적 기술과 마법 사이를 오가는 무대 연출... 르빠주에 대한 당신의 모든 기대는 <887>을 통해 행복하게 충족될 것이다.”

“Seductive storytelling, wry character observation and a stagecraft that lies somewhere between technical innovation and magic... All such expectations are happily fulfilled in 887, ...” Variety

5.29 wed—
6.2 sun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약 2시간, 휴식 없음
Duration: Approx. 2hrs with no interval

영어와 불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and French with Korean surtitles.

wed-fri 8pm
sat 5pm, sun 3pm

THEATRE



살아있는 기억의 예술 -

연극의 힘은 책보다도 강하다

마법 같은 무대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현대 연극의 경계를 확장시켜온 거장 로베르 르빠주. 지금까지 LG아트센터 무대를 통해 선보였던 <안데르센 프로젝트>, <바늘과 아편> 그리고 <달의 저편> 초연과 재공연은 대가의 경지에 올라선 그의 탁월함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자신이 연출한 거의 모든 작품의 초연에 직접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기도 했던 르빠주는 자전적 이야기에 바탕한 이번 작품 <887>을 통해 한국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연출가로서뿐만 아니라 재능과 경륜을 겸비한 배우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줄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된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명한 오랜 시절의 기억들과 자꾸만 쉽게 잊어버리는 최근의 기억들 사이에서 <887>을 착안하게 되었다는 르빠주는 우리 뇌에서 작동하는 기억의 매커니즘, 그렇게 저장된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의문,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체성, 망각과 무의식, 개인의 기억과 사회, 집단의 기억, 연극의 기원에 이르는 광대한 '기억'으로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한다. <887>은 르빠주 자신이 어릴 때 살았던 퀘벡 시티의 주소 '887 Murray Avenue'에서 가지고 온 제목으로 단순한 장소로서가 아니라 7명의 대가족이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작은 집,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던 개성 넘치는 이웃들, 익숙한 소리와 경치를 품은 동네와 거리 그리고 도시에 얽힌 모든 기억들이 보관된 내면의 상징적 공간을 의미한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여러 가지 공간으로 변신하는 무대 세트와 기억을 재현해낸 듯한 다양한 미니어처 모형들, 낡은 상자 속에 묵혀있던 옛날 사진과 신문의 이미지들은 누군가의 추억이자 아용다용 함께 살아온 공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직조하고 눈앞에 펼쳐내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르빠주는 <887>로 우리를 매혹시키며 과거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아련하고도 복잡한 감정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불러낼 것이다. 오래된 것들을 계속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앞으로 의미 있게 기억하고 싶다면 다가오는 5월 <887>에서 로베르 르빠주를 만나보자.

로베르 르빠주 연출/출연
<887>

Ex Machina '887'
directed & performed by
Robert Lepage

887 Murray Avenue, Quebec City, Canada. Taking its title from his childhood address, '887' is an unforgettable tale about memory, identity, and cultural history from world famous theatre visionary, Robert Lepage. Replete with dollhouse-scale buildings and painstaking miniatures, Lepage's solo autofiction combines ingenious storytelling with awe-inducing illusions through high-tech scenic transformations.

supported by  Government of Canada Embassy of Canada  Québec Quebec

© Erick Labbé

“알팍한 질문이나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 영리하고 사려 깊게 그려진 디스토피아”

“A cleverly thought-out dystopia, which is never content with simple questions or simple solutions” Deutschlandfunk Kultur

“무대 위 영상, 조명, 아크로바틱의 활용이 돋보이는 유려하고도 세련된 미래적 무대. 설교나 선전을 능숙하게 피하는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

“Fluid and sleekly futuristic staging, featuring video projections, stark lighting and some onstage acrobatics [...] an engrossing drama that skillfully avoids preaching or propagandizing.” The New York Times

과연 우리의 미래에 대안은 있는가?

왜 우리는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를 통해 현실은 반추해 보면서, 연극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는 소홀한 걸까? 연극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 볼 수는 없을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 막연히 꿈꾸고 있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과연 그 모습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135년 전통을 가진 독일의 명문극단 도이체스 테아터와 홀볼트 재단이 2년간의 리서치를 통해 만든 <Let Them Eat Money>는 지금부터 10년 후인 2028년 유럽 사회를 예측하여 만든 작품이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2011)과 유럽영화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2001) 등을 수상한 바 있는 독일의 저명한 영화감독이자 연출가 안드레스 바이엘이 쓰고 연출한 이 작품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의 리서치와 토론 등을 통한 '참여형 제작 방식'으로 탄생했다.

작품은 2028년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역추적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태리의 EU 탈퇴에 따른 유로존 붕괴, 이란에 일어난 비극적인 가뭄 사태로 인한 난민 대이동, 로봇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력, 인간 뇌에 이식된 바이오칩을 통한 데이터 통제와 감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무능한 정치가 혹은 탐욕스런 자본가가 국가와 시민을 기만한 결과일까? 또는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손 놓고 바라보던, 이미 정해진 결과가 드디어 도래한 것일까?

<Let Them Eat Money>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실패의 결과와 책임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출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가치관을 충돌시키고, 이로 인해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출구를 찾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속도를 최고로 높여 똑같은 벽을 향해 달려드는 '충돌시험용 마네킹'과도 같은 존재로 역사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흥미로운 한편의 연극을 통해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9.20 fri—
9.21 sat
fri 8pm
sat 5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1시간 45분, 휴식 없음
Duration: 1hr 45mins with no interval

독일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German with Korean surtitles.

THEATRE

도이체스 테아터

<Let Them Eat Money>

Deutsches Theater Berlin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

A look into the future! Using participatory formats, Andres Veiel has written a play based on a collaboration with academics and citizens on the subjects of work, finance, the environment, etc., which deals with the past in the future: in 2028, a committee of inquiry asks who is responsible for the events of the years 2018 to 2028. After Italy's withdrawal from the EU in 2023, Europe finds itself facing one of the biggest crises in its history – reason enough to take countermeasures and introduce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in the rest of the EU. But an economic crash is unstoppable. Andres Veiel's aim is to confront conflicting visions of the future beyond the confines of legislative periods or political party interests. Come and join the process of projection and preparation for our future through this intriguing piece of theater.

© Arno Declair

co-production of

DEUTSCHES THEATER BERLIN



HUMBOLDT FORUM IM BERLINER SCHLOSS

sponsored by



on the basis of a resolution of the German Bundestag

supported by



이보 반 호브 연출 <로마 비극>

Internationaal Theater Amsterdam 'Roman Tragedies' directed by Ivo van Hove

11.8 fri—
11.10 sun

fri 5pm
weekend 2pm

All Seats 90,000

소요 시간: 약 5시간 30분, 휴식 없음

Duration: Approx. 5hrs 30mins with no interval

관람 연령: 18세 이상

Age Guideline: 18+

네덜란드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Dutch with Korean surtitles.

THEATRE

Notice!

- 본 공연은 기존의 관객 방식과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5시간 30분의 공연 시간 동안 별도의 중간 휴식 없이 안내에 따라 공연장 안팎, 객석과 무대 사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공연은 모든 관객이 착석한 상태에서 시작하며, 공연 단체의 의도와 특별 요청에 따라 별도의 지정석 없이 객석 1-2층 전석 동등하게 비지정석으로 운영됩니다. 예매 시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is performance offers a completely different experience for the audience. The duration is 5 hours 30 minutes and there will be no intermission during the show.
- Based on the concept of the performance and requests of the company, the entire seats on the 1st and 2nd floor will be on sale at the same price for free seating.



“우리 시대의 가장 대담한 셰익스피어극”
“... one of the most audacious Shakespeare
productions of the modern era” Time Out

이보 반 호브의 최고 걸작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12년 <오프닝 나이트>, 2017년 <파운틴헤드> 그리고 NT Live <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 등을 통해 한국 관객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보 반 호브. 세계적인 연출가의 반열에 올라선 이후에도 여전히 진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수많은 혁신적인 작품들 중 단연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로마 비극>이 2019년 11월 LG아트센터 무대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막을 내린다.

2007년 초연된 <로마 비극>은 셰익스피어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쓴 3개의 희곡 <코리올레이너스>와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를 연이어 구성한 작품이다. 로마를 구하고 영웅이 되었지만 오만하고 타협할 줄 모르다 민중의 적으로 몰리게 된 코리올레이너스. 그와 반대로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로 권력을 얻었지만 공화정을 위협하고 독재자로 올라설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 의해 제거되고 마는 줄리어스 시저. 로마와 이집트를 둘러싼 급박한 정세와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만큼 치명적인 사랑, 공적인 책임감과 내면의 뜨거운 열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두 연인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

이들 로마 시대 인물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장대한 스케일로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대담하게 펼쳐진다.

“<로마 비극>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연극을 통해 총체적으로 정치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준 신기원적인 작품이다.”

“‘Roman Tragedies’ is a groundbreaking production for the new millennium in which the stage becomes a total political experience.” De Standard, Belgium

“어떠한 연극도 이와 같은 시대적 타당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 이 작품을 본 후 당신은 토론하고 또 토론하게 될 것이다.”

“‘Seldom has theatre felt so relevant. ... After seeing the production you start discussing and keep discussing.’” De Morgen, Belgium

<로마 비극>은 5시간 30분의 러닝타임 동안 인터미션 없이 연속적으로 공연된다. 그리고 관객들은 객석 내 정해진 좌석에 시종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타이밍마다 마치 로비 라운지처럼 꾸며진 무대와 객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원하는 위치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무대 위의 대형 스크린은 눈 앞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또 다른 앵글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비춰주고, 전광판의 자막은 앞으로 다가올 격변을 마치 뉴스 속보처럼 예고하며 긴박감을 불러 일으킨다. 5시간 반 동안 연이어 휘몰아치는 사건과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역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는 관객들은 마치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듯한 로마의 인물들과 더불어 설 틈 없이 전개되는 흥미진진한 정치 게임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가장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이 작품은 단연코 우리 삶에서 만난 최고의 연극이자 가장 놀라운 예술적 경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 없는 셰익스피어”
“Shakespeare as never before”
The Independent

LG Arts Center presents Ivo van Hove's revolutionary stage adaptation of three Shakespeare tragedies – 'Coriolanus', 'Julius Caesar' and 'Anthony & Cleopatra'. This interactive, hyper-modern take on Shakespeare's powerful trilogy about the use and abuse of power sheds light on the political mechanisms of our contemporary world. Staged as a single immersive experience of 5.5 hours, this theatrical tour de force turns audience members into the citizens of Rome, encouraging them to move about, change seats, eat and drink at the onstage bar, mingle with actors on the stage, and take their phones to join the conversation online by using the #romantragedies. This is your last chance to see this masterpiece.



“독창적인 안무, 신체가 만들어내는 무한한 상상력”

“Wildly inventive choreography, the physical imagery is boundless.” The Stage

“심플하지만 정교하고, 냉혹하지만 마법 같은”

“Simple yet elaborate, stark but magical” The Times

5.18 sat—
5.19 sun
sat 7pm, sun 3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 no interval
관람 연령: 7세 이상(2013년 이후 출생자)
Age Guideline: 7+

DANCE X THEATRE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 〈피노키오〉

Jasmin Vardimon Company 'Pinocchio'

Jasmin Vardimon Company presents a brand new adaptation of the classic tale, 'Pinocchio'. Based on the original book by Collodi and performed by Vardimon's multi-talented dancers, 'Pinocchio' will bring to life the famous marionette as he embarks on a fantastic journey to become a human boy. Showcasing Vardimon's uniquely theatrical choreographic and directorial style, 'Pinocchio' will combine physical theatre, quirky characterisation, innovative technologies, text and dance to examine the idea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In 2009, the company left a deep impression on the Korean audience with 'Yesterday'; now it returns in 10 years with 'Pinocchio.' The work will be a gift for adults and children alike, presenting a journey to the world of imaginations through a tale we all have once dreamt about. Meet this beautiful gift meant for all members of the family!



극장 새들러스 웰즈의 협력 아티스트가 되어 명실공히 영국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로 자리매김했고, 2014년에는 그 공헌도를 인정받아 '영국 예술위원회 특별상(Arts Council England's Exceptional Award)'을 받기도 했다. 한국 관객들에게는 2009년 <예스티데이>라는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바르디몽의 독특한 안무와 세련된 연출의 <피노키오>는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무용수들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관객부터 현대무용 팬까지 모든 관객들을 재기 발랄한 상상력으로 매료시킨다.

130년 넘게 사랑 받고 있는 명작동화의 매력적인 스토리에 “시작부터 끝까지 순수한 마법으로 가득 찬 작품”이라는 영국 언론의 평처럼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피노키오>의 무대는 나이를 초월하여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동화 속 세계로의 여행을 선물할 것이다. 어린 시절의 향수와 함께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유머를 통해 <피노키오>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 온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만나보자!

무용극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얻은 피노키오의 모험
이탈리아 작가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이 발표된 1883년 이후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중 하나인 <피노키오>가 무용극으로 만들어졌다. 그것도 인간 신체의 한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안무 스타일과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국의 현대무용 안무가 야스민 바르디몽의 손에 의해 말이다.

야스민 바르디몽은 오하드 나하린, 호페쉬 섹터를 낳은 이스라엘 출신의 안무가이다. 무용수로 활동하던 바르디몽은 1997년 고국을 떠나 런던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무용 전문

© Tristram Kenyon

“LDP의 작품은 동시대를 사는 전 세계 모든 현대인의 심리와 감성을 정확히 파고드는 호소력을 갖고 있다.”

“The work of LDP has strong appeal that understands the psychology and emotions of all the people living in the world.”

스페인 ‘라 메르세(La Mercé)’ 예술감독 마르타 알미랄(Marta Almirall)

9.26 thu—
9.29 sun

thu-fri 8pm
sat 7pm, sun 3pm

R 55,000
S 45,000
A 35,000

안무: 정영두, 김동규, 김설진

공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추후 LG아트센터 웹사이트에 고지됩니다.

DANCE



LG아트센터 X LDP 무용단 <12MHz> 김판선 안무, 2015 © 김동규

LDP 무용단 신작 ‘트리플 빌’ ‘Triple Bill’ with Laboratory Dance Project

제작. LDP 무용단 X LG아트센터

LDP(Laboratory Dance Project), founded in 2001, is comprised of some of the most boldly creative young dancers and choreographers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mphasizing physically-charged, acrobatic works, the group has been taking credit for popularizing the contemporary dance genre among young generation and for propelling its versatile dancers to stardom. LDP’s second collaboration with the LG Arts Center will offer an evening of three fabulous new pieces choreographed by Dongkyu KIM, Young-doo JUNG and Seoljin KIM. A cutting-edge triple-bill of work by three artists with distinctly different styles will highlight the incredible talents, passion and energy of LDP’s dancers.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무용단이자, 2001년 창단 이후 19년 동안 흔들림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LDP 무용단이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LG아트센터와 손을 잡고 신작 세 편을 선보인다. 독일,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의 초청 공연과 신작 발표의 장으로 자리잡은 자체 정기공연을 통해 창작 활동과 레퍼토리 유지에 힘 쓰고 있는 LDP는 한국 현대무용계의 심장처럼 뜨겁게 뛰고 있는 무용단이다. 신창호, 차진엽, 김영진, 김동규, 김판선, 김성훈, 김재덕, 김보라 등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무용수들이 댄서를 넘어 안무가로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지켜본 이들이라면, LDP가 우리 현대무용계의 보물창고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트리플 빌’은 LDP의 저력이라 할 수 있는 무용수들과 최근 한국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세 명의 안무가들이 만나는

무대이다. 신체가 가진 섬세한 움직임을 집요하게 탐구하고 정제시켜 자기만의 춤 언어로 구축해 내는 독창적인 안무가 정영두, 현재 LDP의 대표이자 안무가로 LDP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안무가 김동규 그리고 피펫 톰 무용단 <반덴브란덴가 32번지> 내한 공연을 통해 한국 관객들과 만난 이후, 무대와 방송을 장악하며 현대무용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안무가 김설진까지. 탁월한 춤 실력과 뚜렷한 개성을 지닌 LDP와 함께 각기 다른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와 파워풀한 에너지,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현대무용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온 LDP. 이들이 가진 열정과 패기에 세 명의 노련한 안무가까지 합세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더 세련되고, 더 강렬한 그들의 무대를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프레스코화>는 프렐조카쥬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재능을 여실히 보여준다.”

“With ‘La Fresque’, we can tell how gifted Angelin Preljocaj is at telling stories.” La Terrasse

11.1 fri—
11.3 sun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80분, 휴식 없음
Duration: 80mins with no interval

fri 8pm
sat 5pm, sun 3pm

DANCE

프렐조카쥬 발레 <프레스코화>

Ballet Preljocaj 'La Fresque'

프랑스 최정상 안무가의 환상적인 모던 발레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과 현대무용의 파격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로 프랑스 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로 추앙받는 앙졸랭 프렐조카쥬. 그가 이끄는 '프렐조카쥬 발레단'이 최신작 <프레스코화>를 가지고 LG아트센터 무대에 처음으로 선다. 클래식 발레 전공 후 현대무용가로 전향하여 1984년 안무가로 데뷔한 프렐조카쥬는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움직임, 독특한 미학과 파격적인 해석, 뛰어난 안무 테크닉 등으로 데뷔하자마자 단번에 무용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부터 리옹오페라발레, 파리오페라발레, 뉴욕시티발레, 볼쇼이발레 등 세계적인 발레단의 작품을 안무하였고, 2006년부터는

액상 프로방스에 건설된 프랑스 최초의 무용창작센터 더 파빌론 누아르(The Pavillon Noir)에 자신의 무용단과 함께 입성하여 창작센터의 상임안무가로 매년 1-2편의 신작들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그는 '브누아 드 라 당스'와 '베시 어워드'를 비롯하여 수많은 안무상을 수상하였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훈하기도 하는 등 명실공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50여 편 가까이 작품을 발표했음에도 프렐조카쥬의 작품들은 여전히 세련된 감각과 독창적인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1990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배경을 미래의 통제된 계급 사회로 바꾸어 작품을 재해석했고, 2014년 내한했던 <스노우 화이트>에서는 '백설공주'를 사춘기 소녀와 성인 여성의 욕망이 대립되는 구조로 바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일 <프레스코화>는 중국의 설화집 <요재지이(聊齋志異)>에 수록된 <벽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최신작으로, 오래된 절을 방문한 한 남자가 벽에 그려진 긴 머리의 여인에게 매혹되어 그림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프렐조카쥬는 창의적이고 간결한 안무에 아름다운 조명과 의상을 더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무엇보다 탁월한 표현력과 신체조건을 지닌 무용수들은 인간의 움직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잘 만들어진 뛰어난 모던 발레 작품을 만나고 싶다면 <프레스코화>를 절대 놓치지 말자.

Angelin Preljocaj,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oreographers representing French contemporary dance, returns to Korea with his new work. 'La Fresque', inspired by the famous Chinese tale, is about the journey of young men who enter another dimension through a painting on the wall. With preserving the essence of the story, Preljocaj use the power of his imagination to transpose the fairy tale into the splendid ballet anyone can enjoy.



© Jean-Claude Carbone

“여전히 독창적이고, 여전히 놓칠 수 없는 작품”

“Still original. Still unmissable” Metro

“변함없이 대담하고, 아름답다”

“As bold and beautiful as ever” The Daily Telegraph

10.9 wed—
10.20 sun

tue-fri 8pm

10.9, weekend 2:30pm & 7:30pm

VIP 140,000

R 110,000

S 80,000

A 60,000

소요 시간: 2시간 20분, 휴식 포함

Duration: 2hrs 20mins, including an interval

ENTERTAINMENT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 연출가', '베스트 안무', '베스트 의상' 부문 수상(1999)

올리비에상 '베스트 뉴 댄스 프로덕션' 부문 수상(1996)

타임 아웃상 '댄스 어워드' 부문 수상(1996, 1997)

'백조'가 돌아온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경계에서 완벽히 중심을 잡고 있는 매튜 본의 메가 히트작 〈백조의 호수〉가 9년 만에 LG아트센터 무대로 돌아온다. 고전 발레의 상징과도 같은 섬세하고 가녀린 여성 백조 대신 근육질의 남자 백조를 탄생시키며 '백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산산히 조각내버린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마지막 장면 중 빌리의 비상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은 1995년 런던 새틀러스 웰즈 극장에서 초연된 후 웨스트엔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고, 3D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튜 본의 대표작이다.

2003년 LG아트센터 무대를 통해 처음 한국 관객들을 만났으며, 2005년, 2007년, 2010년 재공연을 통해 이미 8만 명 이상이 관람했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린 〈백조의 호수〉는 2014년

이후 한동안 공연되지 않다가 업그레이드 된 무대, 조명, 의상과 강력해진 캐스트로 아시아 투어를 다시 시작한다. 특히 이번 내한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백조들과 함께 최근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내한한 바 있으며,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1대 '빌리'였던 리암 무어를 왕자 역으로 만날 수 있다. 이미 관람한 이들에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명작의 감동을 깨우고, 아직 보지 못한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작을 만날 수 있는 단 2주의 기회. 명성으로만 들었던 전설의 귀환을 맞이하자!

Notice!

• 본 공연의 티켓 오픈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Ticket sales for the show will be announced later.



Retaining all the iconic elements of the original production loved by millions around the world, Matthew Bourne will create an exciting re-imagining of the classic production. Thrilling, audacious, witty and emotional, Matthew Bourne's 'Swan Lake' is perhaps still best known for replacing the female corps-de-ballet with a menacing male ensemble, which shattered conventions, turned tradition upside down and took the dance world by storm.

Ever since it premiered at Sadler's Wells in London, this masterpiece of Matthew Bourne has continued to captivate the hearts of audiences across the world, collecting over thirty international theater awards including an Oliver in the UK and three Tonys on Broadway. It was even created into a 3D film version in 2012. LG Art Center presents an opportunity to meet this marvel for two weeks. Let us greet the return of the legend!

NEW/ADVENTURES

LOTTERY FUNDED
Supported through public funding by
ARTS COUNCIL
ENGLAND

©John Persson design: feastcreative.com marketing: emg-ents.com



© Sussie Ahlburg

2.21 thu
8pm

R 70,000
S 50,000
A 30,000

CLASSICAL
MUSIC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 세드릭 티베르기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Alina Ibragimova & Cédric Tiberghien
Brahms Violin Sonatas

“티베르기엔-이브라기모바 듀오의 만족스러운 연주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는 상상하기 어렵다. 섬세하되 지나치지 않으며 리듬감은 활력이 있으면서 절대 현학적인 연주로 곡을 손상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It would be hard to imagine more persuasive performances than we have here from the ever-rewarding Tiberghien-Ibragimova duo: delicate without feyness, rhythmically buoyant..., and never seeking to gild the lily with an alien sophistication.”

Gramophone

The famed violin and piano duo Alina Ibragimova and Cédric Tiberghien will make a first-time appearance in Korea at the LG Arts Center. These two superb soloists have formed a duo in 2005, astonishing the world with an impressive chemistry. While expectations have run high from the very start with comments like ‘both of these players have the potential to conquer the world’(The Times), the duo has perfectly mastered significant projects such as Beethoven, Schubert, and Mozart, garnering praises by critics and music lovers alike. So far only appreciated through their albums, the duo will finally meet the Korean audience to play all three of Brahms’ Violin Sonatas. As the repertory was already lavishly praised in London, one cannot help but anticipate this seminal experience.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라르스 포그트, 이자벨 파우스트와 알렉산더 멜니코프처럼 각자 굳건한 솔리스트이면서도 뭉치면 더욱 놀라운 음악적 합을 들려주는 바이올린-피아노 듀오가 있다.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와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 세드릭 티베르기엔 역시 그 ‘환상의 듀오’ 대열에 선 젊은 연주자들로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한국 무대에 선다.

전도유망한 젊은 연주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BBC 뉴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의 2005년 연주자로 선정된 인연으로 듀오를 결성한 이들은 초반부터 “음악계를 평정할 잠재력을 지녔다”(더 타임즈)는 평을 받으며 지금까지 10년 이상 무르익은 앙상블을 들려주고 있다. 이 듀오의 케미는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 전곡,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위그모어홀 라이브),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하이페리온) 등 최상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굵직한 프로젝트로

증명되고 있다. 특히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은 3년간 4개의 CD로 발매하여 독일음반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하고 “이상에 근접한 모차르트 듀오”라는 호평을 받으며 평단과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다진 탄탄한 기본기에 음악에 대한 진실성을 바탕으로 분명한 자기주장을 지닌 이브라기모바와 음악을 넘어 무용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는 자유분방함을 지닌 티베르기엔이 이번 내한 무대에서 들려줄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3번). 2018년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펼쳐진 이들의 전곡 연주는 이미 최고의 경지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어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듀오 연주가 될 것이다.

장-기엔 케라스 & 앙상블 레조난츠

Jean-Guihen Queyras & Ensemble Resonanz



© Marco Borggreve

“C.P.E. 바흐의 두 첼로 협주곡을 모던 악기 단체인 앙상블 레조난츠와 함께 온기 넘치는 연주로 녹음한 케라스의 해석에는 작곡가의 선구자적인 정신이 담겨있다. 이 뛰어난 앙상블과 척척 맞는 호흡을 들려주는 케라스는 이 음반에서 설득력 강한, 자연스러운 연주를 들려준다.”

“Queyras’s warmly recorded rendition of two of his cello concertos with the modern-instrument group Ensemble Resonanz certainly encapsulates that pioneering spirit. Working hand-in-glove with this finely honed ensemble, Queyras delivers compelling and idiomatic interpretations...” The Strad

Jean-Guihen Queyras is a cellist known for his broad range of repertoires stretching from baroque to modern. He is best loved for his well-balanced virtuosity and precise musical insight that transcends time. It is his first time visiting Korea together with his longtime partner Ensemble Resonanz, a resident ensemble at Hamburg’s renowned Elbphilharmonie. Since his first visit in 2010 as a duo with the pianist Alexandre Tharaud, Queyras formed a sizable fan base in Korea through various performances ranging from solo recitals and concertos to chamber music. This time, he will present a number of scores that embrace the classic and the modern, with a strong emphasis on the cello concerto of C.P.E. Bach, J.S. Bach’s s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sers regarded to have opened the 18th-century Classical period.

5.24 fri
8pm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PROGRAM

하이든 첼로 협주곡 C장조,
C.P.E 바흐 첼로 협주곡 A장조,
하이든 교향곡 제48번 '마리아 테레지아'

Haydn Cello Concerto No. 1 in C major,
C.P.E Bach Cello Concerto in A Major,
Haydn Symphony 'Maria Theresia', No. 48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LASSICAL
MUSIC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전방위 레퍼토리를 섭렵하며 시대를 넘나드는 통찰력과 균형 잡힌 연주로 큰 사랑을 받아 온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 그가 독일 함부르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엘브 필하모니에의 상주단체이자 자신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앙상블 레조난츠와 함께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선다.

케라스는 2010년 알렉상드르 타로와의 인상적인 듀오로 처음 내한한 후, 솔로, 협연, 실내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소화해내며 한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해왔다. 2018년에는 앙상블 레조난츠와 녹음한 카를 필립 엠마누엘(C.P.E.) 바흐 첼로 협주곡 앨범(아모니아 문디)을 통해 “역사주의 연주에도 능한 우리 시대 최고 첼리스트의 연주”(그라모폰)라는 평가를 받는 한편, 벨기에 현대무용의 거장인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현대무용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등 경계 없는 활동을 통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앙상블 레조난츠는 벅커를 개조한 유럽의 첫 실내악 클럽인 '레조난츠라움'과 런던 테이트 모던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헤르조그 앤 드 뫼롱이 만든 공연장 엘브 필하모니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실내악단 중 하나다.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는 물론 현대 작곡가들 및 세계적인 DJ들과도 콜라보하는 등 독특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래밍으로 정평이 난 그들은 케라스와 2010년부터 호흡을 맞춰왔으며, 이번 공연에서도 완벽한 케미를 자랑할 예정이다.

J.S. 바흐의 차남이자 18세기 고전주의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C.P.E. 바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과 교향곡이 더해져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그 동안 케라스가 선보인 그 어떤 무대보다 더욱 풍성한 사운드와 견고한 하모니를 들려줄 이번 무대를 놓치지 말자.



© Tobias Schult



© Theresa Pawel

“레이첼 포저의 마이다스 손은 비발디의 <사계>마저도 신선한 향취를 풍기게 한다.”
“Rachel Podger’s Midas touch makes even a warhorse such as Vivaldi’s ‘Four Seasons’ sound fresh-minted”
 The Sunday Times

The long praised ‘queen of the Baroque violin’ (The Sunday Times), Rachel Podger returns to Korea where she last performed ten years ago. This time in particular, she will be accompanied by England’s most prominent period-instrument orchestra, the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OAE). Podger has everything one can ask for in a baroque musician, perfect musical skills, warm and vibrant tonal color, and well-balanced, yet spontaneous playing style. Together with OAE she will play Vivaldi’s Four Seasons. Played with vigorous spirit, astounding virtuosity, and delicate ornaments, Podger’s interpretation of the score will prove to us that Four Seasons is not an old warhorse, but a masterpiece to be savored in every different way.



© Eric Richmond

6.12 wed
8pm

R 110,000
S 80,000
A 60,000
B 40,000

PROGRAM

비발디 <사계>, 제미니아니, 코렐리, 만프레디니 등
 Vivaldi ‘The Four Seasons’, Geminiani, Corelli,
 Manfredini etc.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LASSICAL
MUSIC

레이첼 포저 &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비발디 <사계>

Rachel Podger &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 Vivaldi ‘The Four Seasons’

“바로크 바이올린의 여왕”(선데이 타임즈)으로 오랫동안 높은 찬사를 받고 있는 레이첼 포저가 10년 만에 한국 팬을 찾아온다. 그녀의 세 번째 내한인 이번 공연에선 특별히 영국의 대표적인 시대악기 악단이자 레이첼 포저가 객원 리더로서 정기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이하 OAE)가 함께 한다.

완벽한 테크닉과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음색, 그리고 균형 잡힌 연주 속에서도 돋보이는 즉흥성 등 바로크 연주자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포저는 1999년 앨범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로 “음악적 통찰력으로 가득한 만족스런 연주”(BBC 뮤직 매거진)라는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인 솔로 데뷔 음반을 내놓았다. 이후 텔레만, 비발디, 비버, 모차르트 등 체널 클래식을 통해 발매하는 음반마다 바로크 음악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최근엔 2018년 영국 그라모폰상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OAE는 상임 지휘자나 음악감독 없이 연주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악단의 예술적 방향을 이끄는 획기적인 운영방식의 모범을 보여준 단체로, 18세기 계몽시대를 비롯하여 바로크에서 근대까지 음악적 지평을 넓히며 굵직한 프로젝트와 수많은 명반을 만들어낸 ‘명반제조기’다.

레이첼 포저가 실로 오랜만에 내한하여 OAE와 선보일 곡은 2017년에 발매하여 만장일치의 호평을 받은 비발디의 <사계>. 다소 느긋한 템포 속에서도 활기찬 기운이 지배하고 필요한 곳에서 포저의 비르투오시와 절묘하고 섬세한 장식음이 돋보이는 등 그녀는 <사계>가 진부한 레퍼토리가 아니라 여전히 즐겁게 다채로운 명곡임을 일깨워주었다. 이외에도 코렐리, 제미니아니, 만프레디니 등 이탈리아 바로크 협주곡들이 포진한 이번 공연은 포저의 실연을 기다려온 바로크 음악팬들을 설레게 할 것이다.

“듣는 이를 사로잡는 건 넓은 표현력과 순도 높은 강렬함이다. 진정 경이롭다.”
 “... it is the sheer intensity and range of expression that transfixes the ear...Truly a revelation.” BBC Music Magazine

10.22 tue
 8pm

R 80,000
 S 60,000
 A 40,000

CLASSICAL
 MUSIC

PROGRAM

하이든 '농담', 모차르트 '프러시아', 베토벤 제6번 및 '세리오소'
 Haydn String Quartet No. 30 'Joke', Beethoven String Quartet No.6 Op.18, Mozart String Quartet No.22 K.589, Beethoven String Quartet No. 11 Op. 95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ggor.co.kr

카잘스 콰르텟

Cuarteto Casals

“즉각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사운드다. 카잘스 콰르텟은 모던 악기를 연주하지만 시대악기 연주와 비슷하다. 투명한 은빛 음색, 풍성한 울림,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텍스처... 한마디로 ‘고전적’인 연주다.”

“The immediately striking thing about these performances is the sound. Cuarteto Casals play on modern instruments but they’ve assimilated the lessons of 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s... The ensemble tone is silvery and transparent, with ringing, resonant tuttiis... and textures of real clarity in contrapuntal passages. In fact, if I had to choose one word to describe their interpretations, it would be ‘classical’.” Gramophone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profiles in the world’s music scene, the Spanish string quartet Cuarteto Casals meets the Korean audience for the first time. The quartet’s future shone brightly when Strad magazine extolled it as ‘a quartet for the new millennium.’ For the past 20 years, Cuarteto Casals established a firm character of its own based on exceptional musical mastery; the group is especially acclaimed for their take on Haydn, Mozart, Schubert, and Beethoven. This time in Korea, the quartet will present the masterpieces of these composers who have founded and developed the most perfect musical structure in Western music: the ‘string quartet.’ This will be the perfect opportunity to indulge in the classics of a string quartet.

파벨 하스 콰르텟, 에벤 콰르텟 등과 함께 오늘날 세계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현악4중주단 중 하나인 스페인의 카잘스 콰르텟이 처음으로 서울 무대에 선다.

“새천년을 위한 현악4중주단”(스트라드)이라 칭하며 황금빛 미래를 예언했던 카잘스 콰르텟은 1997년 카탈로니아 출신의 위대한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의 이름을 따서 창단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뛰어난 테크닉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한 사운드를 구축하며 정상급 현악4중주단으로 발돋움하면서 특히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연주로 커다란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저명한 ‘보를레티 뷔토니 기금상’ 수상으로 고전주의 시대 활을 마련하게 되면서 음악 양식에 따라 활을 바꿔 연주할 뿐 아니라 제1바이올리니스트를 교대로 맡는 등 곡에 따라 세심한 변화를 주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연주의 진실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내한공연에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서양음악의 가장 완벽한 형식인 ‘현악4중주’를 확립, 발전, 완성한 작곡가들의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베토벤은 카잘스 콰르텟이 2017년부터 창단 20주년을 맞아 전곡 녹음 및 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작곡가인데, 그의 현악4중주를 초기-중기-후기로 나누는 통상적인 구분을 벗어나 ‘창조(Inventions), ‘발현(Revelations)’ 그리고 ‘이상(Apotheosis)’이라는 주제로 전곡을 새롭게 나누어 신선한 시각으로 베토벤을 조명하는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시대 또 하나의 중요한 콰르텟을 통해 현악4중주의 고전을 만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레 비올롱 뒤 루아

'모차르트의 1786년'

Les Violons du Roy

10.29 tue
8pm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PROGRAM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교향곡 제38번 '프라하'

Overture from 'The Marriage of Figaro', Piano Concerto No.23,
Symphony No.38

협연: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 피아노(Marc-André Hamelin, Piano)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may b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LASSICAL
MUSIC



피아노: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Marc-André Hamelin)



레 비올롱 뒤 루아 / 지휘: 조너선 코헨(Jonathan Cohen)

“바로크 활을 사용함으로써 시대악기 악단과 같은 투명하고 유연하며 세련된 연주를 구사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정확한 기교는 연주자와 관객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

“Using baroque bows, they play with all the transparency, flexibility and sheer stylistic awareness of a period orchestra, with a stunning level of technical precision that should be a lesson both to those who listen to this repertoire and to those who play it.” Gramophone

“아믈랭의 전설은 계속된다. 그와 같은 피아니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Hamelin’s legend will grow—right now there is no one like him.” The New Yorker

Canada’s leading chamber orchestra Les Violons du Roy will make their debut performance in Korea with the theme titled ‘Mozart’s 1786.’ The program will consist of intriguing combinations, such as a piano concerto accompanied by Marc-André Hamelin, world’s top pianist acknowledged for his transcendental virtuosity. The orchestra’s newly appointed musical director Jonathan Cohen will lead the program, presenting a colorful array of the classical gems from the period of Mozart’s culmination. Scores include Mozart’s piano concerto, concert aria, and the symphony ‘Prague’, all of which were composed in 1786 after his huge success in Prague with the opera <Le Nozze di Figaro>.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캐나다를 대표하는 실내악단인 레 비올롱 뒤 루아가 처음으로 내한하여 ‘모차르트의 1786년’이라는 주제로 국내 관객에게 첫 인사를 건넨다. 이번 공연에서는 초절기교파로 명성이 높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이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을 협연하는 등 흥미로운 조합의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이다.

‘왕의 바이올린’이란 뜻을 지닌 이 악단의 명칭은 17-18세기 프랑스 궁정악단의 이름(Les Vingt-quatre Violons du Roi)에서 유래하였으며, 17-18세기 레퍼토리를 현대악기로 연주하지만 시대악기 연주법을 적용하는 절충주의 연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84년 퀘벡주에서 창단 이후 점차 세계무대로 활동을 넓혀왔으며, 높은 찬사를 거둔 아믈랭과의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음반을 비롯하여 알렉상드르 타로, 막달레나 코제나, 이안 보스트리지, 율리아 레즈노바 등 유명 솔리스트와

협연 및 녹음을 진행했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내한하는 아믈랭은 가공할 만한 기교로 명성이 높았지만, 최근엔 하이든, 야나체크, 슈베르트 등에서 통찰력이 깊은 깊은 감수성을 보여주며 단순한 기교파가 아닌 진정한 우리 시대의 거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레자르 플로리상의 부지휘자를 거쳐 영국의 고음악 앙상블인 아르칸젤로(Arcangelo)를 이끌고 있는 조너선 코헨을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영입한 레 비올롱 뒤 루아가 아믈랭과 함께 펼치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모차르트의 1786년’ 모차르트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프라하에서 대성공을 거둔 1786년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제23번과 교향곡 ‘프라하’ 등 모차르트의 예술이 만개했던 시기의 주옥 같은 명곡을 다채롭게 들을 수 있다.

“그는 어떤 편견도 극복할 수 있는 숭고한 목소리를 지녔다.”

“He has a voice sublime enough to overcome any prejudice.” The Guardian

3.19 tue
8pm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LINE-UP

토마스 크바스토프, 보컬(Thomas Quasthoff, Vocals)
프랑크 카스테니에르, 피아노(Frank Chastenier, Piano)
디이터 일그, 더블 베이스(Dieter Ilg, Double Bass)
볼프강 하프너, 퍼커션(Wolfgang Haffner, Percussion)

JAZZ MUSIC



© Gregor Hohenberg, SONY

토마스 크바스토프 Thomas Quasthoff 'Nice 'N' Easy'

“<Nice 'N' Easy>를 들으면 그의 노래가 얼마나 진실한지 다시금 놀라게 된다.”

“Surprise again how true Quasthoff's jazz song is.” Westfälische Nachrichten

위대한 성악가, 재즈 싱어로 돌아오다

지난 30년간 깊은 예술성으로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작은 거인' 토마스 크바스토프가 LG아트센터 무대에서 특별한 재즈 공연을 선보인다. 중증선천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크바스토프는 키가 132cm에 손가락은 7개뿐이다. 짧은 다리로는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이유로 음대 진학에도 실패한 그는 은행원, 성우 등의 직업을 거처다가 1988년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30세의 나이에 뒤늦게 프로 성악가로 데뷔한다.

크바스토프는 1999년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계약하고 여러 장의 음반을 발표하며 세계적 성악가의 반열에 오른다. 이중 안네 소피 폰 오터와 함께 노래한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슈베르트 가곡집>, 라이너 쿠스마울과 함께한 <바흐 칸타타> 음반으로 세 번이나 그래미상 '최우수 클래식 보컬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베를린필, 빈필을 위시한 수많은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받아 연주했으며, 다니엘 바렌보임,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마리스 안손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사이먼 래틀 경, 헬무트 릴링, 크리스티안 틸레만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와 함께 전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했다.

크바스토프는 2012년 클래식 음악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연극 배우, 내레이터, 지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재즈 보컬리스트 활동이다. 그는 2014년 재즈 앨범 <My Christmas>을 발표한 데 이어 2018년 소니 뮤직에서 빅밴드와 함께 녹음한 재즈 스탠다드 앨범 <Nice 'N' Easy>를 발매하며 세계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크바스토프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 프랑크 카스테니에르(피아노), 디이터 일그(더블 베이스), 볼프강 하프너(드럼) 등 세계적 명성의 연주자들과 함께 아더 해밀턴의 'Cry Me a River', 존 레논의 'Imagine', 조지 거신의 'Summertime'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곡들을 선보인다. 타고난 장애와 편견을 끝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며 정상의 자리에 오른 성악가 토마스 크바스토프. 그가 들려줄 아름다운 재즈 넘버에 귀를 기울여보자.

Thomas Quasthoff, the three time Grammy Award winner for best classical vocal performance, will be on stage as a jazz singer. Six years after his retirement from performing classical music, this internationally acclaimed bass-baritone has successfully released a new hit jazz album called "Nice 'N' Easy". At the LG Arts Center, Thomas will play beautiful jazz standards with his band, Frank Chastenier(piano), Dieter Ilg(double bass), and Wolfgang Haffner(percussion).

“피아니스트, 작곡가, 편곡가로서 추초 발데스는
아프로 쿠반 재즈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As a pianist, composer and arranger,
Chucho Valdé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modern Afro-Cuban jazz.” Billboard

9.17 tue
8pm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LINE-UP

추초 발데스, 피아노 (Chucho Valdés, Piano)
드라이저 듀루시, 바타 (Dreiser Durruthy, Bata)
야롤디 아브레우, 콩가 (Yaroldy Abreu, Congas)
엘시 헤레디아, 베이스 (Yelsy Heredia, Bass)



© Carol Friedman

추초 발데스 '재즈 바타'

Chucho Valdés 'Jazz Batá'

“눈부신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건반 위의 황제”

“A pianist of imperial command, possessed of a dazzling,
deceptively casual virtuosity.” The New York Times

아프로 쿠반 재즈의 살아있는 역사

“쿠바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타임)라고 일컬어지는 거장 뮤지션 추초 발데스가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미국에 듀크 엘링턴이 있다면, 쿠바에는 추초 발데스가 있다”는 말처럼 작곡, 편곡, 연주에 모두 능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인 그는 지난 50년간 쿠바 음악계를 이끌어온 라틴 재즈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쿠바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베보 발데스(Bebo Valdés)의 아들로 태어난 추초는 1972년 전설적인 밴드 '이라케레(Irakere)'를 창단하였다. 재즈와 클래식, 펑크를 혼합하고 바타(batá)와 같은 쿠바의 전통적인 리듬 악기를 결합한 이라케레의 실험적인 음악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아프로 쿠반 재즈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2000년 그는 재즈 거장들의 산실인 빌리지 뱅가드 공연을 녹음한 <Live at the Village>로 미국 무대에서도 커다란

Winner of six Grammy Awards and three Latin Grammy Awards, the Cuban pianist, composer, and bandleader Chucho Valdés has been a key figure in the evolution of Afro-Cuban jazz for the past 50 years. This concert is based on his new album 'Jazz Batá 2'(2018), which evolved from his significant recording 'Jazz Batá'(1972) blending jazz with traditional rhythms of the batá drums. With talented young Cuban musicians, Valdés will deepen his search for the roots of Afro-Cuban music.

성공을 거두었고, 이 음반을 포함해 지금까지 6번의 그래미상과 3번의 라틴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자신의 명성과 쿠바 음악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77세라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와 현란한 기교로 여전히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도 아바나에서 매년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쿠바 음악계에 끊임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2001년 첫 내한에서 신들린 연주로 한국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발데스는 이번 공연에서 2018년 발매된 신보 <Jazz Batá 2>를 중심으로 아프로 쿠반 재즈의 정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바타, 콩가 등 다이내믹한 타악기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피아노 터치가 돋보이는 앨범 <Jazz Batá 2>는 1972년 발매된 음반 <Jazz Batá>의 컨셉을 되살려 실력 있는 젊은 쿠바 뮤지션들과 함께 46년 만에 재녹음한 버전이다. 쿠바 아바나의 어느 한적한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음악처럼 당신의 마음을 들뜨이게 할 추초 발데스의 신들린 피아노 연주를 놓치지 말자.

러시 아워 콘서트 RUSH HOUR CONCERT

2018 러시 아워 콘서트
'두번째달 with 소리꾼 김준수'

꽉 막힌 당신의 마음을 뺨 뚫어주는 짜릿한 음악 여행!
Escape the chaotic rush hour traffic, and enjoy a concert instead!

“복잡한 퇴근 시간, 러시 아워를 피해 즐기는 공연 한 편”이라는 테마로 2011년 시작되어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러시 아워 콘서트’가 2019년에도 우리 곁을 찾아온다. 팝, 록, 재즈, 국악, 월드뮤직 등 장르를 불문하고 탁월한 음악성과 독보적인 개성을 겸비한 동시대의 뛰어난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진다. 평일 저녁 7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러시 아워 콘서트’와 함께 고단한 일상을 잊고 작은 행복을 느껴보자.

* 러시 아워 콘서트 라인업과 예매 일정은 2019년 1월 중 LG아트센터 웹사이트에 고지됩니다.

Ever since the ‘Rush Hour Concert’ began in 2011 under the theme of “escape the chaotic rush hour traffic, and enjoy a concert instead,” it was highly beloved by a number of audiences. It will continue in 2019. Stretching across diverse disciplines such as pop, rock, jazz,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world music, the program will present live stages of contemporary musicians who boast musical excellency and extraordinary character. Come and join the ‘Rush Hour Concert’ on a weekday at 7pm to forget the stress of everyday life and to cherish the happy moments.



아티스트와 관객이 만나는
LG아트센터
관객참여프로그램

LAMP

LG Arts Center
Meets People

LG아트센터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의 예술 세계와 창의력을 관객과 공유하는 관객참여프로그램 LAMP(LG Arts Center Meets Peopl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가 엄선한 기획공연 CoMPAS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LAMP는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만남의 시간, 직접 체험해보는 워크숍 그리고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LAMP는 관객 여러분께 예술과 예술가를 통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의 시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ponsored by  신한카드



피나 바우쉬 무용단의 헤지나 애드벤토, 다피니스 코키노스
<스위트 맘보> 관객과의 대화, 2017



토닐그룹 암스테르담의 배우 램지 나스르, 연출가 이보 반 호브,
배우 바트 슬레거스
<파운틴헤드> 관객과의 대화, 2017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
<아토모스> 관객과의 대화, 2017



연출가 고선용, 배우 김소진, 오지호, 조영규
<라빠르트망> 관객과의 대화, 2017

CoMPAS19 Discount Information

Ticket sales for each programs will begin
at 10am on Thursday, 10 January 2019

* Ticket sales for Matthew Bourne's 'Swan Lake' will be announced later.

Early Bird Discount

Thu, 10 Jan ~ Sun, 10 Feb

- Receive a discount of 15% on each performance

Get-together Discount

Thu, 10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Discount is offered for a group of 4 or more people who purchase the same grade for the following programs (The first 100 seats per performance)

25% 'A Doll's House, Part 2'

'Triple Bill' with Laboratory Dance Project

20% All 7 music programs

Jasmin Vardimon Company 'Pinocchio'
Ex Machina '887' directed & performed by Robert Lepage
Deutsches Theater Berlin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
Ballet Preljocaj 'La Fresque'

15% Internationaal Theater Amsterdam 'Roman Tragedies'
directed by Ivo van Hove

Family Discount

Thu, 10 Jan ~ Fri, 17 May

- If you purchase the same grade at the same performance for Jasmin Vardimon Company 'Pinocchio' with 4 or more people including a child who born from 2001 to 2013, you can get a 30% discount.

Youth Discount

Thu, 10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those born after 1 January 1996.
- 30% off for A and B seats / 20% off for R and S seats
- Please bring your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when collecting your ticket.(If not, you will be charged for the difference on site.)

Shinhan Card Art Collections Discount

Thu, 10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Get a 20% discount for 'Shinhan Card Art Collections' programs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The first 200 seats per program)

* Apply to follow programs:

Jasmin Vardimon Company 'Pinocchio'
Ex Machina '887' directed & performed by Robert Lepage
'Triple Bill' with Laboratory Dance Project
Matthew Bourne's 'Swan Lake'
Ballet Preljocaj 'La Fresque'

Shinhan Card Discount

Thu, 10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Get a 10% discount for every program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 One discounted ticket applies to one performance only. Discounts may not be applied more than once or in a retroactive manner.

* The discounts are only for LG Arts Center CoMPAS19 programs.

CoMPAS19 Program Packages

Ticket sales for packaged programs will begin at **10am on Thursday, 3 January 2019**

For inquiries on package purchases, please contact us by

- Online: www.lgart.com/eng
- Box Office: weekdays 9am-6pm (Closed on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 Tel: 02-2005-0114

Package Information

- Package purchasers will receive a special package card.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online, phone or by visiting our box office.
-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programs comprising the package.
- Cancell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package are not accepted once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package has been staged. However, you may change the performance dates provided that the subject tickets pertain to the same show.
- Package purchasers can get individual tickets at a 20% discount for up to two guests that accompany them to each individual program of the package.

Notice

- Ticket sales for Matthew Bourne's 'Swan Lake' will be announced later. Please note that Matthew Bourne's 'Swan Lake' is not included in all packages, but we'll offer a 20% discount for those who purchased any CoMPAS19 packages.

The Doubles Package

Thu, 3 Jan ~ Tue, 9 Apr

- * 30% savings on all 7 theatre and dance programs below

10-21 April
'A Doll's House, Part 2'

18-19 May
Jasmin Vardimon Company 'Pinocchio'

29 May – 2 June
Ex Machina '887'
directed & performed by Robert Lepage

20-21 September
Deutsches Theater Berlin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

26-29 September
'Triple Bill' with Laboratory Dance Project

1-3 November
Ballet Preljocaj 'La Fresque'

8-10 November
Internationaal Theater Amsterdam
'Roman Tragedies' directed by Ivo van Hove

(R) 525,000 → **367,500**

(S) 415,000 → **290,500**

(A) 315,000 → **220,500**

The Theatre Package

Thu, 3 Jan ~ Tue, 9 Apr

- * 20% savings on all 4 theatre programs below

10-21 April
'A Doll's House, Part 2'

29 May – 2 June
Ex Machina '887'
directed & performed by Robert Lepage

20-21 September
Deutsches Theater Berlin
'Let Them Eat Money, Which Future?!'

8-10 November
Internationaal Theater Amsterdam
'Roman Tragedies' directed by Ivo van Hove

(R) 310,000 → **248,000**

(S) 250,000 → **200,000**

(A) 200,000 → **160,000**

The Dance Package

Thu, 3 Jan ~ Fri, 17 May

- * 20% savings on all 3 dance programs below

18-19 May
Jasmin Vardimon Company 'Pinocchio'

26-29 September
'Triple Bill' with Laboratory Dance Project

1-3 November
Ballet Preljocaj 'La Fresque'

(R) 215,000 → **172,000**

(S) 165,000 → **132,000**

(A) 115,000 → **92,000**



The Classical Music Package

Thu, 3 Jan ~ Wed, 20 Feb

* 30% savings on all 5 classical music programs below

21 February
Alina Ibragimova & Cédric Tiberghien

24 May
Jean-Guihen Queyras & Ensemble Resonanz

12 June
Rachel Podger &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

22 October
Cuarteto Casals

29 October
Les Violons du Roy

(R) 460,000 → 322,000

(S) 350,000 → 245,000

(A) 250,000 → 175,000

* If you purchase 'Thomas Quasthoff' with the classical music package, you can get 20% discount for 'Thomas Quasthoff'.

(Including)

19 March
Thomas Quasthoff 'Nice 'N' Easy'

(R) 560,000 → 402,000

(S) 430,000 → 309,000

(A) 310,000 → 223,000

The Jazz Music Package

Thu, 3 Jan ~ Mon, 18 Mar

* 20% savings on all 2 jazz music programs below

19 March
Thomas Quasthoff 'Nice 'N' Easy'

17 September
Chucho Valdés 'Jazz Batá'

(R) 200,000 → 160,000

(S) 160,000 → 128,000

(A) 120,000 → 96,000



The Free Choice Package

*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CoMPAS19 programs selected. Three types of price packages are available based on the seat grades. You may not select a certain program more than once to make up the free choice package.

35% savings on 10 or more programs selected

Thu, 3 Jan~Thu, 23 May

25% savings on 6 or more programs selected

Thu, 3 Jan~Thu, 19 Sep

15% savings on 3 or more programs selected

Thu, 3 Jan~Mon, 28 Oct

제휴 레스토랑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단, 각 레스토랑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할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카드 및 쿠폰과 중복할인 불가)



RESTAURANT (가나다순)

강가 (인도식 커리)

02-2005-0610

11:30-15:00 / 17:00-22:00

(일요일 21:30까지)

코스메뉴 15% 할인 (티켓 1매당 1세트)

머큐어 엠베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 뷔페 레스토랑)

02-2050-6034

11:30-14:30

쏘도베 레스토랑 런치 10% 할인

보나베띠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11:30-23:00 (일요일 휴무)

일주일 이내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 소지 시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분짜라봄 역삼점

(베트남 하노이식 분짜 & 쌀국수)

02-567-5379

11:00-22:00

전 메뉴 1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싱카이 (중식당)

02-2005-1003-4

평일 11:30-14:30 / 17:30-22:00

주말 12:00-21:00

식사 금액 10% 할인

와인주막차차 역삼점 (와인 & 한식)

02-554-0722

평일 11:00-01:00, 토 17:30-01:00

일요일 휴무

5% 할인(역삼점만)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11:30-22:30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CAFÉ

메인 로비 카페

당일 입장권 소지 시 10% 할인



CoMPAS19 sponsored by



CoMPAS19 Shinhan Card Art Collection sponsored by



CoMPAS19 supported by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좋은 점!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시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취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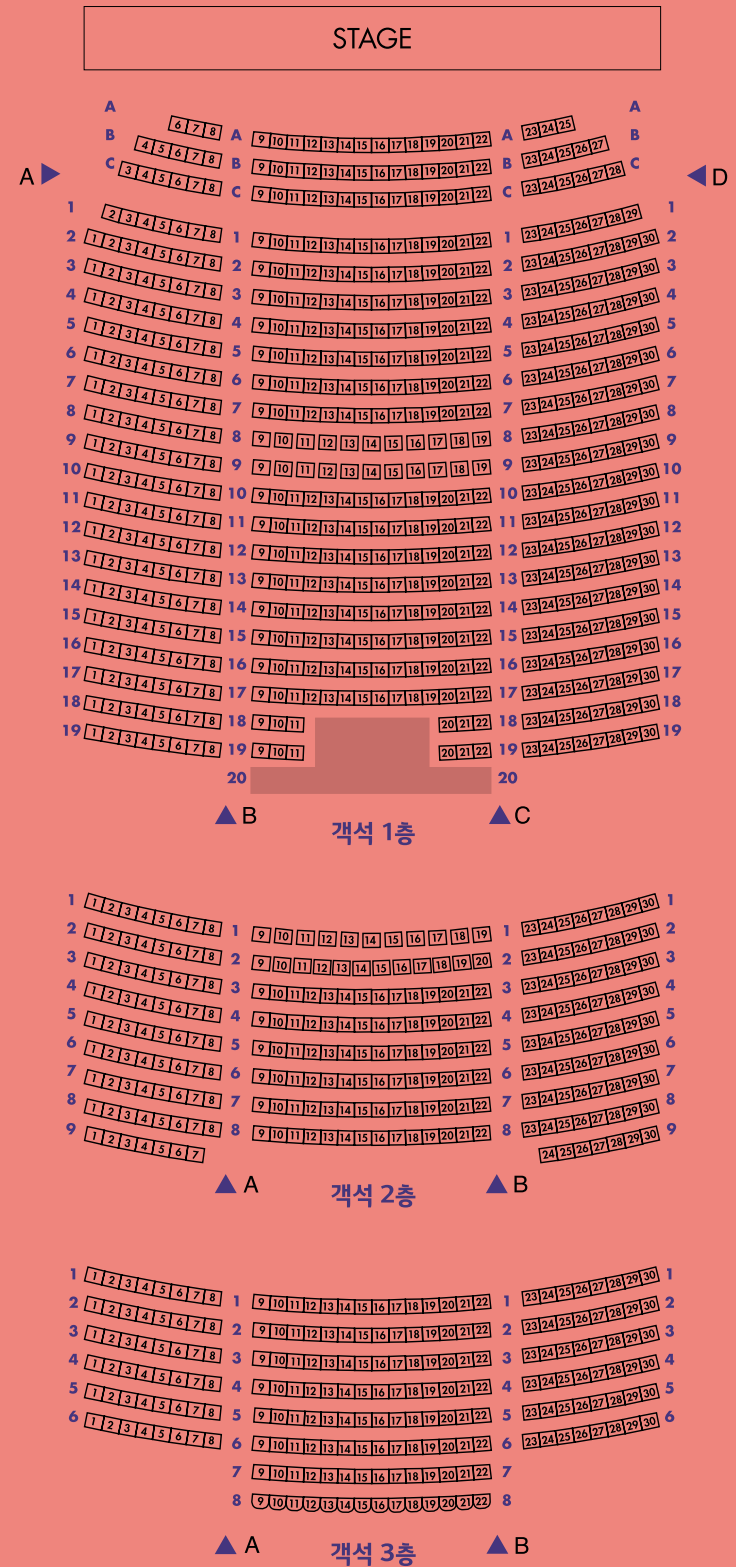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불가)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TMI는 뉴스레터로!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기획공연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Azine(에이진)을 만나시면, 관람의 깊이와 기쁨이 커집니다.

좌석배치도



LG아트센터 객석: 총 1,103석

객석 1층 A, B, C열은 오케스트라 피트석입니다.